

28장. 지혜에 관하여

욥기 28장은 일종의 막간극에 비유할 수 있다. 욥이 세 친구와 나눈 세 차례의 대화는 전개될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혜에 관한 시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후로는 세 번의 담화(욥의 독백, 29-31장; 엘리후의 발언, 32-37장; 하나님의 말씀, 38-41장)가 나오고 욥기가 끝난다. 이렇게 대화들 사이에 돌연히 나오기 때문에 28장의 내용이 무언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들도 있지만⁷²⁾, 이 28장은 욥기의 중앙에서 이 책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한 것임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28장에서 말하는 지혜에 관한 교훈은, 앞에서 지혜에 관하여 계속 논쟁하여 온 것에 대한 대답이다. 세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였지만, 욥은 “모든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다”(12:2),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13:5),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26:3) 하는 말들로 친구들의 지혜를 조롱하였다.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는 이 장에서 28장은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또한 28장은 이후에 나오는 세 담화를 준비시켜 준다. 따라서 이어지는 욥과 엘리후의 발언은 이 28장의 선언을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28장은 여호와께서 바람과 비를 보내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관하여 선언하는데(28:26-28), 이것은 폭풍우 가운데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조금 보여 주는 셈이다(38:1; 38-41장).

욥기의 구조에서 28장이 차지하는 위치나 맨 마지막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는 말은, 28장의 화자가 욥이 아님을 암시한다. 28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에 하신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서(1:1, 8; 2:3), 욥이 전하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28장 전체를 욥의 말로 보기 보다는, 욥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늘의 관점에서 욥기의 주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는 편이 좋다. 또한 27장과 29장은 각각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하는 말로 시작하고 1인칭 동사가 사용되는 반면에, 28장에는 3인칭 동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전후의 장과는 구별된다.

지혜를 말하는 이 장에서는 지혜가 있는 ‘장소’(마崙. 1, 6, 12, 20, 23, 26)와 거기에 이르는 ‘길’(테렉. 8, 23, 26; 나티브, 7절)이 중요한 단어이다. 12절과 20절에서 지혜가 어느 ‘장소’에 있으며 거기에 이르는 ‘길’이 어디인지를 묻는데, 우선 12절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19절까지 길게 이야기하지만 답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20절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23절에 가서야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장소와 길을 아신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제어들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28장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11절.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보물

12-19절.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보물과 그 가치

20-28절.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

72) 역사비평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28장을 후대의 첨가물로 보고,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재배열하기도 한다. David J. A. Clines의 경우는 28장을 엘리후의 발언으로 보고, 엘리후의 발언 마지막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Job* 21-37, 708, 907.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보물 (1-11절)

| 개역 | 사역 |
|--|---|
| 1 은은 나는 땅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 1 참으로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곳이 있다. |
| 2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 2 철은 땅에서 취하고 바위를 녹여 구리를 얻는다. |
| 3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 | 3 사람이 어둠을 끝내고 저 끝까지 나아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⁷³⁾ 찾는다. |
| 4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밭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 4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길이 잊힌 곳에 갱도를 파고 사람이 없는 데서 (줄에) 매달려서 흔들거린다. |
| 5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 5 양식을 내는 땅이지만 그 아래는 불로 하는 것처럼 요동하고 있다. |
| 6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 6 그곳의 반석은 청옥의 장소 금가루도 거기 있다. |
| 7 그 길은 술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 7 그 길은 술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
| 8 위엄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 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을 디딘 적이 없고 사자도 그 위를 밟아본 적이 없다. |
| 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 9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친다. |
| 10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 10 바위에 터널을 뚫고 그의 눈으로 각종 보물을 확인한다. |
| 11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춰있던 것을 밝은 데로 내느니라. | 11 물줄기가 ⁷⁴⁾ 흐르지 않게 막고 숨겨진 것을 밝은 데로 가져온다. |

1-4절에서는 사람이 금과 은, 철과 구리가 있는 곳을 알고 그것을 채취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세상 끝(타클릿)까지라도 나아가서 보물을 채취하는 데에서 사람의 뛰어난 점을 볼 수 있다. 광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도 갱도를 파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필요한 광물을 캐낸다.

곡물을 재배하는 땅 아래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청옥과 금가루를 채취하는데, 하늘을 나는 맹금류나 땅의 사자도 그 장소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오직 사람만이 산을 뿌리째 파헤치면서⁷⁵⁾ 터널을 뚫고 지하수를 통제하면서 거기서 각종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보물이 있는 곳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곳과 그 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28장에서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보물과 그 가치 (12-19절)

| 개역 | 사역 |
|----|----|
|----|----|

73) 직역하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의 반석”이다. 장소의 2격으로 해석하였다.

74) 우가렛의 병행구에 근거하여서 ‘미버크 느하로트’를 ‘강들의 근원’ 곧 신들이 거주하는 두 강 사이를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175.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는 광산에서 물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5) 산을 뿌리째 파헤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는 것과 방불한 일이다(9:5).

| | |
|---|---|
|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
| 13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 13 그 자리는 ⁷⁶⁾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생물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
|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 14 깊은 물이 “내 안에 없다” 하고 말하고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고 말한다. |
| 15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 15 순금을 주고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서 값을 치를 수 없다. |
|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 16 오빌의 순금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고 값진 루비나 청옥으로도 안 된다. |
| 17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 17 정금이나 크리스털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고 순금 그릇과도 바꿀 수 없다. |
| 18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 18 산호나 수정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지혜의 가치는 값진 진주보다 귀하다. |
|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 19 구스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한다. |

욥기의 저자는 사람이 보물이 있는 곳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지만, 지혜에 대하여서도 그러한지를 묻는다. 그리고는 대답으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깊은 물과 바다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13-14절).

15-19절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지만, 사람이 어렵게 채취한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물론 그 지혜는 매우 고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욥기의 저자는 지혜의 장소와 거기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제기하고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며 거기에 이르는 길도 아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 (20-28절)

| 개역 | 사역 |
|---|---|
| 20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 20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
| 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 21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다면! ⁷⁷⁾ |
| 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 22 멸망과 사망이 말한다. “그것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 |
| 23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 23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그 장소를 아신다. |
| 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 24 이는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
| 25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 25 이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⁷⁸⁾ 물의 분량을 결정하시기 위함이다. |
| 26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 26 그분이 비를 위하여 법칙을 주시고 천둥과 번개를 ⁷⁹⁾ 위하여 길을 내셨을 때에 |

76) ‘에레흐’를 개역이나 NIV, ESV에서는 ‘가치’로 번역하였지만, ‘층,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 70인역에서는 ‘호도스’(길)로 번역하였고 NJB 등이 그것을 따랐다.

| | |
|---|--|
| 27 그때 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 27 바로 그때에 그분이 지혜를 보시고 선언하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다. 28 그리고 그분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
|---|--|

욥기의 저자는 다시금 지혜의 자리와 거기에 이르는 길을 묻는다. 그곳은 비록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져 있지만, 멸망과 사망은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멸망과 사망의 경계에서만 알 수 있다는 암시이다. 또한 지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욥에게 오히려 지혜가 가까이 있음을 격려하는 말도 된다.

이러한 예비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난 후에,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장소와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고 말한다. 특히 비와 바람을 보내시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폭풍우의 분량을 재어서 보내시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을 암시한다(38:1). 폭풍우가 내리고 번개와 우레가 칠 때에 사람은 혼돈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지혜를 보시고 또한 지혜를 선언하신다. 이러한 데서 지금 재난을 당한 욥에게 상징적으로 알려 주시려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28장은 결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천명한다. 사람이 지혜를 찾으려고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비록 그것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그 지혜의 비밀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묵상과 실천:

1.

77) 21절은 ‘바브 + 완료’로 시작하는데 ‘바브’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조건절 역할을 한다. CJB는 “inasmuch as”로 ‘바브’를 해석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숨겨져 있는데”로 그 의취를 살려서 번역하였다.

78) 직역하면 “바람에게 무계를 주시기 위하여”이다. ‘르 + 부정사 연계형’은 목적의 의미를 지니고, 앞 문장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바라보시며 하늘 아래 만물을 보시는 것이 바람의 무계를 정하고 비를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매번 바람을 보내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몇몇 사본은 26절을 따라 ‘르’를 ‘버’로 바꾸어서 “바람의 무계를 재실 때에”로 옮기고 대부분의 현대역이 이것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현재적 성격을 이해하면 전치사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25절에서는 섭리의 목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26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술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79) 직역하면, ‘소리들의 천둥’이다. 번개와 천둥을 묘사하는 말이다.